

2015. 06. 11

~

2015. 06. 30

19박 20일

잘 먹고 잘 놀기



2015.06.11 ~ 2015.06.30
간디학교 새싹들의 뜨거웠던 여름

목 차

움직이는 학교 일정표	-----	6
식단표	-----	8
우리들의 빛나는 무빙이야기	-----	11
연우의 움직이는 학교이야기	-----	12
태윤이의 움직이는 학교이야기	-----	18
담이의 움직이는 학교이야기	-----	20
마루의 움직이는 학교이야기	-----	26
재하의 움직이는 학교이야기	-----	32
한별이의 움직이는 학교이야기	-----	34
우제의 움직이는 학교이야기	-----	40
명주의 움직이는 학교이야기	-----	42
우진이의 움직이는 학교이야기	-----	44

수민이의 움직임은 학교이야기	-----	50
봄 이 의 움직임은 학교이야기	-----	52
태훈이의 움직임은 학교이야기	-----	58
다운이의 움직임은 학교이야기	-----	60
영인이의 움직임은 학교이야기	-----	64
원 이 의 움직임은 학교이야기	-----	66
연 지 의 움직임은 학교이야기	-----	70
정민이의 움직임은 학교이야기	-----	72
강 이 의 움직임은 학교이야기	-----	76
수정이의 움직임은 학교이야기	-----	78
아름쌤의 움직임은 학교이야기	-----	82
영준쌤의 움직임은 학교이야기	-----	84
수진T의 움직임은 학교이야기	-----	86

😊 움직이는 학교 일정표 😊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7	8	9	10	11	12	13
오후	가 정 학 습				입교(PM5:00) 움직이는 학교 O.T	제천 10경 알아보기 모듬 버스 미션	<u>영월 1박 2일!</u> 한반도 지형 → 고씨동굴
오전	14	15	16	17	18	19	20
오후	<u>영월 1박 2일!</u> 영월 오일장 장보기(모듬별)	도예 산야초 효소 담그기	단양 오일장 두부 만들기 & 두부요리뽐내기	우리 마을 일손 돕기 (feat. 물놀이)	도예 천연염색하기	천렵 <u>야영</u> 작은 음악회	<u>야영</u> 물놀이와 자체 프로그램 → 야영정리
도움 주시는분		주현쌤 춘희쌤	선옥쌤	지수지성이네 성현이네 현정이네	선옥쌤 주현쌤	춘희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21 자유시간	22 풍물전수	23 풍물전수	24 풍물전수	25 풍물전수	26 풍물전수	27 리허설&준비
오후					미당극 '집' 관람		풍물 "공연"
도움 주시는 분		서명석쌤					
오전	28 정리 & 이동	29 안동 자유여행	30 집으로...	7/1	2	3	4
오후	안동 모꼬지			가 정 학 습			
도움 주시는 분							

우리의 빛같은 식단

보통 아기새는 어미새가 잡아오는 먹이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죠.

그 러! 나! 간디의 아기새는 그렇지 않아요.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해요. 우린 할 수 있어요! 굶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이자, 우리!!!! 그럼.. 우리 움직이는 학교 때 뭐 먹을까?

날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6/11 (목)	집에서 먹고 오세요~		다은어머님의 볶음밥, 어묵	감자와 미숫가루
6/12 (금)	동그라미조의 만둣국!	미션지에서 모듬별로~	봄, 정민, 태훈네 소고기덮밥	닭고치
6/13 (토)	주먹밥과 빵, 과일!	30년 정통 영월 막국수	영월 기차 숙박 삼!겹!살!	전국! 3대! ♥일미 닭강정♥
6/14 (일)	영월에서 육개장 백반	영월 오일장 먹방 투어!	재하, 연우네 돈까스와 요거트	감자 고로케
6/15 (월)	세모조의 햄김치국!	마루, 우제네 파인애플볶음밥	모듬별 맛난 저녁	노릇노릇 군만두
6/16 (화)	네모조의 짬토! 계란토스트	단양장에서 맛난 밥	모듬별 맛난 저녁	시원한 수박
6/17 (수)	동그라미조의 짬토스트&스프	미션지에서 얻어먹기	모듬별 맛난 저녁	햄버거 feat. 두부패티
6/18 (목)	세모조의 어묵국	정민, 우진네 떡볶이&유부초밥	모듬별 맛난 저녁	꼬소꼬소한 밥전
6/19 (금)	네모조의 콩나물국	천렵 후! 매운 떡라면	꼬기!꼬기!	빙튀기~와 수박, 토마토~

날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6/20 (토)	한별이네 강된장		아빠들의 삼계탕	쵸코 핫케이쿠 feat. 허니
6/21 (일)	아빠들의 짜장밥		아빠들의 김치비지찌개	아빠들의 선물 칙! 힌!
6/22 (월)	조랭이 미역국	오이 냉국	돼지고기 김치볶음	오뎅 핫바
6/23 (화)	닭가슴살 샐러드~~	잔치국수 후루룩 후루룩	콩나물밥	닭가슴살 도띠아
6/24 (수)	어묵국	오이냉국 부침개	돼지고기 김치볶음	핫도그도그
6/25 (목)	만두국	짜장밥 어묵국	간식 먹고 배불러서안먹음	우진이네 샌드위치!
6/26 (금)	계!란!말!이	김치볶음밥	해물짬	떡과 수박
6/27 (토)	김치 콩나물국 호박전	카레라이스	돼지 불고기	엄마, 아빠의 선물! 칵~힌
6/28 (일)	엄마, 아빠의 떡국	기차안에서 김밥과 달걀	안동 원조! 안동 찜닭	영화보며~ 강냉이와 콜라
6/29 (월)	빵과 스~프 외국분위기 술술	모듬별로 맛난거 먹기	마지막 밤! 꼬기파티~♥	팝콘&수박& 아이수크림~
6/30 (화)	뜨끈뜨끈 누룽지탕	집에서! 맛있는거 무그래이~~ 고생했다 예쁜이들아♥♥♥		

우리들의 빛나는 무빙 이야기



연우의 움직이는 학교 이야기 





무빙이 전체적으로 재미있었다.
근데 약간 힘들었다. 너무 뻑뻑했다.
그래서 피곤했다.

기차 숙소에서는 재미있었고 좋았다. 장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마지막 안동에서가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다.
PC 방도 가고, 옷도 보러다니고 먹고, 놀고...

그런데 자유시간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재미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스태프가 많이 걸려서 힘들었다... 너무 의견이 맞지 않았다.
농구를 많이 못했다. 애들이 아팠다.

이번 1학년 무빙으로 친구들과 좀 더 친해진 것 같다. 힘들었다.

똥그라미조 미션 - 의림지에서 관광객과 사진찍기



세모조 미션 - 청풍문화재단지에서 엽사찍기



네모조 미션 - 탁사정에서 강강수월래와 만세하기



움직이는 학교의 뜨거웠던 첫날밤(?)



태운이의 움직이는 학교 이야기 



무빙 중에 스탑 사건이 있었다.
연우 건과 태훈이 건이 있는데,

연우 건은 선글라스가 부서지고,
태훈이 건은 텀블러가 부서지고,
연우 건은 티오 10개가 없어졌다.

범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물놀이와 천렵을 했는데 재미있었다.
물놀이를 하다가 아름쌤이 울었다.

천렵은 다슬기를 많이 잡아 재미있었다.



영화를 봤는데 코난, 삐삐, 설국열차를 보았다.
재미있었고, 설국 열차가 재미있었다.

아빠들과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해서 재미있었다.
나중에도 또 하고 싶다.

또 자유시간이
하루밖에 없어 아쉬웠다.

무빙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다.

무빙 평가서 끝!!!



간디학교 처음 무빙 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우리 학년만 있다는게 형들이 재밌다고 했는데 무빙할 때는 잘 몰랐는데 기말주간이 되면서 알았다. 우리학년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학년만 있을 때 할 수 있는게 있어서인 것 같았다. 예를 들어서 무빙 때 부모님 사감쌤 이였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1층 전화 방 쪽에 이불을 많이 깔아놓고 2층에서 떨어지는 놀이 같은 것도 해보고 기숙사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등 형들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았다. 영월도 기억에 남는데 고씨굴이였나 동굴이 되게 시원하고 재미있었다. 근데 사진을 못 찍는게 조금 아쉬웠다. 5일장에서 애들이랑 닭발이랑 메추리를 먹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이상했다. “애들이 무슨 닭발을?” 약간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벌써 닭발을 먹는다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풍물전수 때 태평소를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없었다. 그래서 장구를 했는데 명석쌤이 잘 가르쳐 주셔서 흥미롭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풍물전수가 마지막 쯤이어서

몸이 슬슬 힘들어지면서 우리 반에 전염병이 돌았다. 그때 나도 견지를 못 할 정도로 심하게 아팠는데 명석쌤이 배를 막 눌러주시면서 속에 뭐가 막혔다면 치료를 해주셨다.

풍물전수 기간에 마당극도 갑자기 보러 갔었는데 너무 재밌었다. 뭔가 뮤지컬은 돼게 길고 약간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마당극은 약간 유아용 뮤지컬 같이 쉽고 재밌었다.

공연당시에는 나도 신나서 팔 아픈지도 모른 채 막 쳤다. 전수 때는 지루할 때도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호응해주시고 하니까 신나고 좋았다.

안동도 갔었는데 자유시간 때 한별이랑 커피집만 골라서 다녔다.

처음에는 스타벅스를 갔었는데 거기서 부모님에게 드릴 커피를 샀다.

지금도 집에 가면 내려서 먹고 있다. 향이 신기한 커피였다.

두 번째로는 작은 카페를 갔는데 카페 아줌마가 바닐라 시럽 같은걸 다 만드셔서 파셨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인데 커피의 연금술사라는 곳이었다.

카페 아저씨가 우리가 물어보는 것과 커피 등등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랑 초코라떼도 주셨다. 그리고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산후 다이소에서 놀 것들을 산 후에 세계 과자 전문점에 가서 불량식품을 조금사서 다시 숙소로 가서 고기를 먹었다.

내가 구웠는데 잠깐 우제한테 맡겼는데 고기를 다 태워 버렸다.

그래서 그 고기는 우제가 다 먹었다. 맛있고 재밌었다.

무빙은 전체적으로 모두 재미있었다. 모두 다 같이하고 같이 지내고 학년에 관계를 더욱 좋아지게 해준 것 같다. 2학년 무빙도 기대된다. 끝



영월 1박 2일 여행 - 한반도지형



영월 1박 2일 여행 - 한반도지형 트래킹



영월 1박 2일 여행 - 30년 전통 맛있는 막국수



영월 1박 2일 여행 - 탄광문화촌







무빙의 첫 활동은
제천 10경이다.

우리 조는 의림지를 갔는데
의림지에 조금만 있었다.
그래서 심심했다.

그 다음에 영월에서
1박 2일을 했다.
영월에서 한반도 지형과

고씨 동굴에 갔다.
한반도 지형이 신기했고, 고씨 동굴이 시원했다.

또 오일장을 갔는데 영월과 단양 오일장을 갔다.
영월에선 닭발을 먹고, 메추리와 슬러시를 먹었고,
단양 오일장에선 어묵을 먹었는데 아줌마가 어묵을 더 먹으라고 주셨다.

두부 만들기도 했는데
우리 조가 1등을 했다.

별로 맛이 없었는데,
1등을 해서 기분이 좋았다.



영월 1박 2일 여행 - 석항역 기차숙소



영월 1박 2일 여행 - 셀카 퍼레이드



영월 1박 2일 여행 - 고씨동굴과 미로공원



영월 1박 2일 여행 - 미로공원 미션사진



재하의 움직이는 학교 이야기





무빙은 일단 많은 걸 배운 것 같다.

천연 염색도 하고, 효소도 만들고, 고기도 잡고... 많은 걸 배웠다.

학교에 우리 학년 밖에 없어서 우리끼리 추억도 많이 만들고 그랬던 것 같다.

쓰러져서 찌그러진 농구링이 안와서 무빙동안 기숙사에서 농구를 못했다.

그게 약간 아쉽다.

아, 그리고 좋았던 거 중에 또 하나는 풍물이다.

초등학교 때 풍물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좋았다.

아주아주 짜증나고 화나고 그랬던 게 있다.

무빙 때 스태프가 3번이나 걸린 것.

연우의 선글라스가 부서지고 연우의 아이스티 10봉지 가까이가 없어지고,

태훈이의 텀블러 안쪽 뚜껑이 부서져 있어서 스태프 회의가 3번이나 걸렸다.

그 때 너무 피곤하고 귀찮았고 친구들의 신뢰도 깨진 것 같다.

그런 점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얻은 것이 많았던 무빙이었고,

친구들끼리 더 친해지는 무빙이었던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상처받은 것도 있지만 말이다.

한별이의 움직이는 학교 이야기





무빙은 처음에는 좋았다.
나는 가장 생각나는 것만 적겠다.

나는 안동 갔을 때가 가장 생각한다.
담이랑 카페에 많이 들렸다.
어느 카페에서 아저씨가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도 공자로 먹게 됐다.
스타벅스에서 원두를 샀는데 맛있었다.
그리고 숙소에서 자고 집에 갔다.

도예 - 타일 만들기



산야초 효소만들기 - 산야초 채취



산야초 효소만들기 - 새콤달콤(?) 효소 만드는 중



우리들의 저녁시간 -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눈빛





무빙은 날 오랜만에 애들과 만나 놀았다. 무빙의 시작이다. 6월 12일 금요일 드디어 첫 번째 일정이다. 제천 10경 알아보기와 버스 미션을 했다. 우리 모듬은 제천 문화재 단지를 갔다. 근데 정말 추천하지 않고 싶은 곳이었다.

6월 13일 토요일 ~ 6월 14일 일요일 우리는 1박 2일 영월 여행을 갔다. 그날은 한반도 지형과 고씨동굴에 갔다. 그리고 기차 숙소에서 머물렀다. 한반도 지형은 뗏목을 타고 가서 한반도 트래킹을 할 수 있다. 한반도 종주를 10분 만에 경험하다니!!! 멋있는 날이었다. 15일부터 19일까지는 도예, 산야초 효소 담그기, 단양 오일장가기, 두부 만들기와 '두부 요리 대회', 우리 마을 일손 돕기, 물놀이, 천연 염색, 천렵을 하였는데 재미있었다. 도예는 타일을 만들어 세면실에 붙인다 하였고, 효소는 산에 가서 각종 풀, 약초, 열매 등을 따서 찌고 설탕에 절여놓았다. 단양 오일장에서는 우리가 밥해먹을 재료를 사고 흠어져서 놀았고, 두부 만들기는 콩물을 짜서 간수랑 섞어 끓였다. 그랬더니 두부 완성 ㅎㅎㅎ

그 두부요리대회는 만든 두부로 진행했다. 우리는 두부 김치 비빔밥과 두부김치를 만들어 2등을 하였다. 마을 일손 돕기는 지수, 지성네에 가서 호스 돌리고, 뽕잎을 다듬는 일을 했다. 그리고 물놀이가서 놀았다. 재밌게 ㅎㅎㅎ

6월 19일, 20일은 야영을 했는데 그럭저럭 재밌었다.

21일 일요일은 자유 시간을 가

졌다. 22일 월요일~ 27일 토요일까지는 풍물전수를 받고 공연했다. 명석쌤이 너무 잘해주셔서 재밌었지만 아파가지고 많이 못 한게 아쉽다.

6월 28일~30일까지 우리는 안동 모꼬지를 갔다. 무빙 중에 최고인 것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기차 여행으로 안동까지 갔다. 그리고 자유 시간 전, 컨택츠 진흥원에 눈이 가서 들어가서 책보고 나왔다. 그리고 자유 시간 1시간을 1보냈다. 숙소(종갓집)에 들어와서 놀고 먹고 잤다. 그 다음날 역사적인 20명이 한 차에 타고 안동으로 가서 자유시간을 보냈다. 너무 잤다. 드디어 자유가!!!

마지막 날 나는 안동의 특산물 마차를 사서 집에 갔다. 무빙의 끝이다.

그리고 나는 무빙은 희로애락이고 생각이 확 드는 일이었다.



부록. 무빙이 '희로애락'인 이유?

희(기쁨) : 난 집으로 3주만에 간다는 소식이 가장 기쁨이었다.

로(화남) : 난 무빙에서 범인 때문에 힘들었고 짜증났다. 그래서 가장 화가 났다.

애(슬픔) : 난 전수 때 친구들과 싸운 게 가장 슬픔이었다.

락(즐거움) : 난 안동에서 가졌던 각자의 자유시간이 가장 즐거웠다.





아름쌤, 영준쌤, 반 애들과 기차를 타고 안동에 갔다.
기차를 오랜만에 타서 재미있었다.

안동 호반 자유휴양림에 가서 애들과 놀다가 맛있는 안동찜닭을 먹었다.
배고픈 상태여서 그런지 더 맛있던 것 같다.

다음 날은 여자애들 다같이 안동역 주변에 있는 홈플러스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안동
구시장 쪽에 있는 다이소에 가서 타투를 샀다.
그리고 안동구시장에 있는 떡볶이 골목에 가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었다.
적은 돈으로 싸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떡볶이 집이 엄청 많아서 신기했다.

그리고 애들이랑 다같이 악세사리 구경도 하고 나서 베스킨 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회오리 감자를 먹고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버스를 타고 휴양림으로 돌아왔다.
진짜 진짜 재미있고, 다음에도 애들이랑 놀러 가고 싶다.

그리고 이번 무빙을 하고 난 후
친구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재미있는 무빙이었다.

우진의 움직이는 학교 이야기 





처음에 했던 제천 10경은
할 게 없어 심심했다.
영월 1박 2일은 한반도 지형이 신기했고
기차 속소도 신기했다.
야영 때는 텐트가 피기 쉬웠다.
물놀이가 제일 재미있었다.
영화도 재미있었다.
자유시간 때 나가지 못해서 아쉬웠다.
그래도 아빠들이랑 노는 것도 재미있었다.



풍물 전수 때는 1주일동안 힘들었다.
그래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남자애들끼리 한 술래 잡기도 재미있었다.



안동에 갔을 때는
모듬끼리 안다녀서 좋았다.
안동 자유시간 때는
버스가 안와서 짜증이 났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PC 방에 갔다가 분식을 먹고
수입과자 전문점에서 과자를 샀다.

마지막에 갈 때 아쉬웠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았다.
아무튼 재미있었다.

버스타고 단양 시장으로 승승



같은 콩을 쪄물쪄물~



두부 요리대회 - 무엇이 제일 맛있을까?



스탑 회의 중 간식타임 - 맛있오맛있오 수박!



수민이의 움직이는 학교 이야기 



친구들과 같이 1달 동안 지내서 좋았고, 수진쌤, 아름쌤과도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생각보다 좀 힘든 것도 있어서 놀랐고 그래도 그런게 다 해결돼서 좋았다. 안동 갔을 때는 자유시간이라서 여자애들끼리만 다녔는데 그 때 애들하고 놀아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중간에 기차 숙소에서 잘 때 눈감고 슬래잡기도 하고, 닭강정을 먹어서 완전 재미있고 맛있었다. 모듬별로 제천 10경에 갔을때는 우리끼리 버스타고 찾아가서 재미있었고 남자애들하고도 모듬 활동하면서 조금이라고 친해진 것 같다. 우리반 여자애들하고는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내가 애들한테 잘못된 게 있어서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타로 봤을 때 교황이 나오고 그주의 타로 봤을 때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 엄마, 아빠를 보고 싶긴 했는데 중간 중간에 엄마, 아빠가 밥해주러 오셔서 완전 많이 힘들진 않았다.

무빙 때는 학교나 기숙사에 우리 밖에 없어서 막 소리 지르고 놀았는데 언니, 오빠들 오니까 뭔가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것 같다. 무빙 끝나고 애들과 친해져서 좋고, 좀 있으면 2학기니까 조금 기대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2학년 때 무빙도 재밌을 것 같고, 재미있으면 좋겠다. 무빙을 점수로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7~80% 정도 될 것 같다.



봄이의 움직임은 학교 이야기



일단 무빙 처음 시작될 때 매우 설렘설렘이었다. 딱 학교 들어와서 ‘아 진짜 우리밖에 없구나.’ 이렇게 실감이 났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제천 10경 다녀오기에서 미션이 엽사 찍기, 관광지 앞에서 사진 찍기였는데(참고 : 우리는 청풍문화재단지), 정말 청풍에 볼게 없었다. 그리고 내가 애들한테 청풍에 2,3000원 짜장면 집이 있다고 거짓 정보를 퍼트렸다는 사실 ㅋㅋ 거기서 그냥 돌다가 버스를 타야하는데 버스마저 놓였다. 그래서 쌤이 데리러 오셨다. 그때 약간의 싸움이 있어서 매우 짜증 짜증 난 상태였다ㅠㅠ(미안해요, △조ㅠㅠ) 하하, 돌아와서 밥을 먹고 기숙사 올라가서 놀았다(재미있게~). (하루 나누기 기분은 매일 했으니까 생략 GO,GO~)

그 다음 영월 1박 2일은 한반도 지형은 정~말까진 아니지만 힘들었다. 그리고 고씨 동굴은 매우 좋았다. 시원하고 재미있는데다가 힘들지도 않았다.(그래서 좋은거♥) 그리고 영월에서 2일 재날 영월 오일장에 갔었다. 이 때 장을 봤는데 남자 애들은 도움이 안돼서 우리 △조 여자끼리 장을 다 보았다.(영인, 연지, 나) 힘들진 않았지만 그냥 쿡쿡..

그 다음 도예를 했는데 내거기 잘했다고 해서 내심 뿌듯했지만 나는 별로 못한 것 같았다.ㅋㅋㅋ 그리고 오후에 산야초 효소를 담그는데 재미있었다. 그 다음날은 단양 오일장!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재미있었던 것 같다. 오후에 두부 만들기는 살짝 아쉬웠다. 너무 짜가지고.. 그리고 오후에 한 두부요리 뽐내기 대회는 만드는 것도 재미있고 2등도 해서 좋았다.♥ 그 다음 날은 일손 도와드렸는데 의외로 쉬웠다.ㅋㅋ 그리고 물놀이 짱짱 재미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도예하고 잤다. 왜냐하면 남자애들이 6월 17일 날 stop을 새벽 2시? 3시?까지 해서ㅋㅋ 그래서 쪽 자다가 점심먹고 천연 염색했는데 맘에 들었다. 그 다음 날은 천렵하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좋았다. 그리고 오후에 또 물놀이했는데 물놀이 아무리해도 질리지 않는다. 그리고 뽀뽀를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자고 있었다. 야영 둘째날은 그냥 놀았는데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비가 그쳐서 경도(경찰과 도둑. 게임 룰은 인터넷 검색)를 했다. 그리고 텐트로 접었고요. 일요일 자유 시간이지만 한 게 없다.....월요일부터 쪽 풍물! 참고로 난 팽과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난 장구 체질. 그리고 토요일 날 공연인데 감격에 눈물ㅠㅠ 그리고 안동에서 신나게 고고 놀았다. 첫째 날 도서관 같은데 가서 만화책 실컷 보고, 둘째 날 자유여행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힘들어죽는줄 알았다. 3시간 달려 충주, 또 충주에서 30분 달려 음성.. 휴 3시간 30분이나 간 셈이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학습을 즐기고 있는 중 -아름T, 영준T, 수진T 감사해요♥-



우린 일을 했으니 찰나게 놀테닷!



수제 버거가 나왔던 그 어느 날



옷을 쪼물쪼물 손도 쪼물쪼물



남녀 같이 축구하는, 역사적인 그 순간!





가정학습이 끝나고 입교. 그 다음날 제천 10경은 청풍 문화재 단지에 갔는데 입장료가 2,000원이라서 돈이 약간 아까운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날엔 영월에 1박 2일로 여행을 가서 TV로나 보던 한반도 지형을 보고 신기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한반도 지형을 돌았고, 갯도 체험을 했다. 그러고 기차 속소에 갔는데 의외로 시설이 좋았다. 다음 날 영월 오일장에서 장보기를 하고 슬러시, 치킨을 먹고 즐겁게 놀다가 양말과 바지를 샀다.

15일엔 도예와 산야초 효소 담그기를 했는데 약초 따는 것은 잊지 못할 것 같다.

16일엔 단양 오일장에서 장보고 아주 재미있게 놀았다.

두부 요리 만드는 데 볶음밥이 인기가 있었다.

다음 날 일손 돕기하고 물놀이를 했다. 물이 많이 없어서 실망했다.



18... 19일엔 천렵을 하며 많은 물고기들을 잡고 놀았다.

20일엔 설국 열차를 봤는데 다른 영화를 더 보고 싶었다.

21일 자유시간엔 아빠들이 오셔서 아침을 만들어주시고 오후엔 축구를 했는데 처음엔 1골 먹힌 상태로 지고 있던 상태에서 재하와 강이가 1골씩 넣었고 코너킥 상황에서 내가 헤딩을 했는데 공이 20cm만 왼쪽으로 갔어도 골을 넣을 수 있었을텐데 아까웠다. 2:2로 후반이 끝나서 골든골에서 아쉽게 졌다.

그 다음 풍물 전수가 있었는데 이틀까진 괜찮았는데, 셋째 날부터 몸살 때문에 하질 못했다. 아프고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괜찮아졌다.

공연은 무사히 끝나게 되었다.

다음 날은 아동으로 모꼬지를 갔다. 자유여행은 점심으로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었다. 그리고 선글라스, 시계 등을 샀다. 문화의 거리에서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



나에게 첫 무빙은
음.. 한마디로 재미있었다.

먼저 기숙사에서는 눈치 안보고,
우리들끼리 편하게 지냈던 것이 가장 좋았다.
그리고 뭐.. 중간 중간에 간담회랑 친구들끼리 좀 그랬던 것이 좀 그랬지만,
난 다 좋았다.

천연염색한 것도 재미있었고,
풍물 전수는 좀 힘들었는데 하고, 발표할 때는 뿌듯하고 재미있었다.



무빙 때가 평소보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다.
난 한 것 중에 안동 여행이 가장 재미있었다.
또 무빙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진짜 많이 친해진 것 같다.
쌤들이랑도 더 친해진 것 같고,

정말 무빙 때 재미없었던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냥 내가 좀 귀찮았을 뿐이지..

빨리 다음 무빙도 하고 싶다.

끝♥

천렵 - 물고기 잡아서 소금소금 후춧후춧



야!영! - 텐트도 치고, 바베큐도 하고!



영인의 움직이는 학교 이야기





무빙은 진짜 재미있었고 모든 게 풍족했다.
 먹을 것도 놀 것도 다 많아서 너무 좋았다.

애들끼리도 더 친해졌고 서로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로써 정말 재미있었고 진짜
 다시 가도 좋을 만큼 너무 좋았다.

첫 날에는 좀 적응이 안돼서 힘들었지만
 안동여행 등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끼리 장도 보고 간담회도 하면서
 다 좋아졌다.



우리끼리의 우정도 쌓았다.
 운 적도 많고 간담회를 하며
 속상한 것을 모두 털어놓으며
 오해를 풀기도 했다.
 그래서
 더 서로 잘 알게 되었다.

진짜 재미있었다.



1학년 첫 무빙은

처음에는 기대되었다가 중간에는 재미있었고 마지막에 아파서 아쉽고 힘들었다.

그리고 제천 10경은 재미있을줄 알았는데 탁사정은 진짜 할게 없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먹은 김밥과 라면은 맛있었다.

다음에 영월에 1박 2일을 갔다. 한반도 지형은 진짜 한반도 같았다. 고씨동굴은 시원했는데 나중에는 추웠다. 미로에서는 슬래잡기가 재미있었다.

영월에서 기차 숙소에서 잤고 영월 오일장에서 닭발, 치킨, 메추리구이, 과자를 먹었다.

처음 먹어본 닭발이지만 맛있었다.



단양 오일장에서 서비스로 어묵 꼬지를 더 주셔서 밥 대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도예는 의외의 성취감을 느꼈다.

일요일은 자유 시간이었는데 아빠들이랑 축구와 농구를 했다.

풍물은 처음에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하고 보니까 재미있게 수

업을 해주셔서 재미있었다. 수요일에 배가 아파서 수업을 못했고 밥도 안먹었다. 오랜만에 아파서 더 아팠던 것 같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봐서 좋았고 발표도 순조로웠다.

다음 날에 안동 기차 여행을 갔다.

배가 아파서 기차에서 준 김밥도 조금 밖에 못 먹었다. 안동에서 먹은 짬뽕은 엄청 맛있었다. 안동에서 자유시간은 좀 아쉬웠다. 버스가 안 와서 너무 늦게 갔다. 자유 시간에는 피자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분식을 먹었는데 어묵은 맛있었다. 그리고 수입 과자 할인 매점에서 처음 보는 과자를 몇 개사고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 날에 버스를 타고 터미널까지 갔는데 버스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해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에 가서 좋았다.



자유일까? 아닐까? 아빠와의 하루



마당극 '집' - 전수 중 꿀 같은 나들이





언니 오빠 말로는 썸을 많이 탄다고 했지만 우리 반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여자 애들끼리도 친해지고 남자 애들이랑도 친해진 것 같다.

무빙 때 기차 안에서도 자고 정말 재미있었다. 원래 가정 학습 때 학교에 오기 싫었는데 왔더니 애들 컨디션이 정말 좋아보였다.

그리고 첫날부터 간담회를 했다. 진짜 힘들었다. 피곤하고 다음 날 너무 졸릴 것 같았다. 무빙이 시작하는 첫 날 정말 학교가기가 싫었다. 왜냐면 짐싸기도 귀찮고 또 여자애들 뭉쳐서 다닐 것 같기도 했다. 첫 날 간담회를 해서 좋기도 하다. 그리고 간담회를 해서 좀 더 친해졌고 사이도 좀 더 편해진 것 같았다. 근데 방짤 때 애들이 짜고 해서 좀 기분이 나쁘긴 했다. 그래도 별로 싫지는 않았다.



그리고 처음 기차 여행을 갔을 때 재미있었다.

아! 그 전에 10경을 알아보러가서 돌아오는 길에 대판 싸웠다. 그리고 아름쌤이 데리러 오셨다. 영인이가 벌에 물려서...

그리고 기차 여행 때 기차로 돼서 안에는 침대가 정말 이쁘게 3개씩 쌓여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산야초 효소를 담겼는데 산에 가서 풀 뜯고 씻고 통에 설탕뿌려서 매실을 넣고 뭐 등등 그런 것을 했다.

그리고 두부도 만들고 두부 음식도 만들어서 대결도 했다. 그 다음 날은 일손 돕기를 했다. 근데 집에 있던 어떤 언니가 오디 주스를 해주셨다. 진짜 맛있었다. 예솔쌤과 동충이라고 한 것 같다.



남자애들은 일요일 날 덕산에 못가서 아빠들과 축구를 했고 우리는 덕산에 가서 놀다가 왔다.



풍물전수는 힘들었다. 애들이 아팠는데 나도 아팠다. 근데 애들이 나보고 피병이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다.

풍물 공연을 하고 안동에 가서 책을 읽고 숙소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다운이가 슬리퍼를 지붕위로 올려서 영준쌤이 꺼내주셨다.





무빙에서 물놀이가 제일 좋았다.
마지막 주에 안동에서 2박 3일을 있었다.

첫날엔 진흥관에 가서 만화책을 봤다.
자유여행으로 홈플러스에 가서 잠깐 놀다가 안동 구시장에 갔다.
다이소에서 영인이 거울을 부셨다.
떡볶이 거리에서 점심도 먹고 악세사리도 구경하고 많이 돌아다녔다.
저녁엔 모듬나뉘서 고기 구워 먹었다.

밤에 남·여 간담회를 했는데 진지하진 않았지만 많이 이야기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김조광수가 만든 조선 명탐정2를 봤다. 재밌었다.
무빙이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편했다.
무빙기간에 애들과 더 친해진 것 같아 좋다.

아침먹고 풍물 점심먹고 풍물



두근두근 풍물 발표



강이의 움직이는 학교 이야기





무빙 O.T는 탁사정으로 갔다. 탁사정은 정말 할 게 없었다.
개울이 보이는 조금 오래 된 정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탁사정은 정말 볼 게 없어서 허무했다.

영월 1박 2일은 한반도 지역은 재밌었다.
특히 배 타는 것이 재미있었다.
하지만 고씨굴은 전에 갔을 때보다 코스도 줄고 조금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재미없었다.

효소 담그기는 조금 힘들었다. 일손돕기는 너무 일이 빨리 끝나서 날로 먹은 느낌이 있었다. 천렵은 손으로 고기를 1마리도 못잡아서 아쉬웠다. 일요일 날에 부모님과 축구를 했는데 내가 1골을 넣었다. 하지만 3:2로 졌다.
풍물 전수는 생각보다 그리 힘들지 않아 좋았지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파서 힘들었다. 공연을 할 때 많이 틀려서 아쉽다.
안동은 우제랑 자유여행갔다.
수제 아이스크림을 4,000원정도 주고 샀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기분이 안좋았다.
하지만 재미있었다.



입교 날부터 무빙이라는 생각에 너무 좋았다.

제천 10경은 기대하고 힘들게 갔는데 정자 밖에 없어서 좀 아쉬웠다.

영월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았던 것 같다. 한반도 지형을 걸을 때 좀 힘들었지만 탄광 문화촌에 가서 탄광 모형 안에 들어가니 너무 시원하고 좋았다. 기차 속소는 지내기 정말 좋았고 놀다가 커튼 빠트린 걸 반성하고 있다. 아침에 기상 시간이 늦어졌는데도 늦잠을 자서 아침이 바빴다. 아침밥은 만족할 만큼 맛있었다. 미로공원은 더워서 싫었고 고씨동굴은 신기하고 시원해서 좋았다. 그런데 미로공원에서 슬래잡기 할 때는 너무 재미있었다. 영월 오일장은 먹을 것이 진짜 많았다.



도예는 손이 너무 아팠고, 산야초 효소 담그는 것은 풀이 팔에 쓸려서 싫었다.
 두부 요리는 진짜 망한 듯 했다. 다른 요리를 해도 괜찮았을텐데... 좀 아쉽다.
 일손 돕기가 생각보다 쉬워서 빨리 끝내고 만화를 봤다. 그리고 물놀이도 너무 재미있었다.
 쌤들이 시간이 안돼서 일정이 바뀌어서 편했다. 도예 타일 한번 구운 거 유약 발라서
 다시 가마에 넣고 휴게실에서 12시 30분까지 잤다.
 그리고 천연 염색을 했다. 얼룩진 남방을 염색했는데 완전 새 옷이 되어 돌아갔다.
 천렵할 때는 물고기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매운탕도 정말 맛있었다. 물놀이 할 때 남자애
 들이 물통, 물총을 빼앗아가서 짜증이 났다. 자체 프로그램은 영화를 봤다. 설국열차를 봤
 는데 꽤 재미있었다. 자유 시간에는 남자애들은 무단 외출이어서 못나가고 여자애들은 나
 갔다가 일찍 왔다.
 풍물전수 때는 아파서 연습을 많이 못했다. 그래서 아쉽다.
 안동 모꼬지는 짱! 이었다.
 그동안 내가 내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해서 아프고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코피도 나고
 누워있기도 하고 집에도 간 것 같다. 지금 무병동안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한 나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감동의 마무리 자리



이제 다 했으니 안동으로 떠나자!



아름쌤의 움직이는 학교 이야기



두 번째 움직이는 학교... 작년엔 이어 1학년 움직이는 학교를 하는데 크게 다른 점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시작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내며 마음의 부담감과 어깨에 점점 느껴지는 책임감을 느끼며 다름을 실감했다.

불안하고 긴장하며 이어갔던 움직이는 학교였다.

혹시나 다치진 않을까, 아프진 않을까, 내일 여행을 가는데 비가 오진 않을까...

그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도 나를 웃게 울게 만들어 준 것은 우리 반 친구들의 마음이었다. 하나하나 사소한 행동들 속에서 커가는 모습이 작은 빛처럼 예쁘게 보였기 때문이다.

간디학교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함께 산지 3개월 남짓 된 여러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울기도 많이 울고 힘들어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힘든 상황을 바꿔나가려는 모습이 참으로 기특했다.

각자의 마음을 털어놓고, 힘듦에 눈물을 보이면서도

마지막에는 함께 방법을 찾아나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고마웠다.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풍물이었다.
 6일 동안 함께 풍물 전수를 받으며 그 짧은 시간동안
 변해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감동으로 다가왔다.
 조금씩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들,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 조금씩 배려해나가는 모습들이 나에겐 가장 큰
 힘이 되었고 감사한 순간들이었다.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쳐가던 시기였는데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짧은 19박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눈에 띄게 큰 친구
 들을 보며 방가방가반의 6년이 참으로 기대가 된다.
 어떤 모습으로 커갈지, 간디학교를 졸업할 19살의 모습
 은 어떠한지 지켜보고 싶다.

19박 20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길기도, 짧기도 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크게 힘든 것 없이,
 너무 빨리 끝나 아쉬움을 느끼게 만들어주었던 것은
 영준쌤과 수진쌤을 비롯한 프로그램을 도와주시며
 함께 해주셨던 많은 쌤들,
 그리고 먼 거리임에도
 덕산에 계시는 것처럼 발 벗고 달려와
 도와주신 부모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놀고,
 간디학교와 덕산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게
 언제나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15학번의 첫 번째 움직이는 학교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2015년의 뜨거웠던 6월, 우리 모두의 가슴 깊이
 추억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이란건 늘 그렇듯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간디 교사생활에서 첫 부담임을 맡고 진행된 무빙.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담과 긴장감으로 시작된 무빙은 기쁨과 벅참으로 끝났다
내 역할은 “잔소리 지존 대마왕”

하지만 질서와 통제가 아닌 인간의 예의를 강조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주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나의 부족함이 실수로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했건만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서투름이 보였었던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했다.

아름쌤의 무한 사랑과 수진쌤의 넉넉한 여유로움에 기대어
무사히 무빙을 마침에 감사의 마음 전한다.

하지만 가장 큰 힘은 역시나 아이들 이었다.
무질서하며 좌충우돌하는 듯한 걸모습에서 조금씩 스스로 일어서는 아이들을 보며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부끄럽지만 오히려 내가 아이들을 통해 더 성장하지 않았나 싶다.

마지막으로 묵묵히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시며 무빙에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 보냅니다.

수진T의 움직이는 학교 이야기



넷가로 나가자 아이들의 환호소리를 커져만 갔다. 그것이 비명인지 환호인지 구분은 잘 되질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맨 처음 물을 흠뿌린 것은 아이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 모두 다 동시에 가까운 그 찰나에 모두를 향해 물을 흠뿌리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난리법석이었다. 옷이 젖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어디서 물총을 갖고 와서 쏘는 아이, 플라스틱 병에 물을 담아 물을 던지는 아이, 봉지에 물을 담아 물폭탄처럼 터뜨리는 아이들에 아이들을 집어 올려 물에 던지는 선생님에, '아아~악! 아아~악!'을 연발하면서도 아이들과 신나게 물장구를 치는 선생님까지. 쉼 없이 구름이 월악산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던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멈춤 없이 흘렀다. 얼마나 놀았을까? 아이들의 즐거움에 가득찬 소리가 잠들기 시작했던 즈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걸. 오랜만에 내게도 이런 행복이 찾아 왔다는 것을. 뜻하지 않았던 선택들이 때때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다시금 느낀 것이다.

1학년 무빙을 선택했던 이유는 간단했다. 3학년도 다녀왔고, 2학년도 다녀왔었기에 다음 순터와도 같은 1학년 무빙을 선택한 것이었다. 특별한 감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별 특별한 기대는 없었다. 언제나 별 다른 기대 없이 떠난 여행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듯 이번 1학년 무빙도 그러했었던 것 같다. 참으로 감사했고, 행복했던 3주였다.

아이들의 성향이 그러했다는 것도 있었겠지만 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담임쌤인 아름쌤의 넘치는 열정과 부담임쌤인 영준쌤의 끊임없는 잔소리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쪼고 안아주는 것이 탁월했다는 생각. 1학년 1학기인 아이들은 당연히 지켜야 할 예의며 규칙이며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영준쌤의 쪼임과 아름쌤의 밝은 웃음은 아이들을 긴장하게 만들



기도 했으며 그 긴장감이 풀어지게도 만들어 주었다. 3개월 동안의 아이들을 보아온 바로 이 아이들이 가장 큰 성장을 보여준 시점이 바로 이 3주간의 무빙이었다. 나도 행복했었지만 아이들도 그 넘치는 사랑을 직접 경험하면서 무척 행복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 학기가 무빙 같았으면 좋겠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리 특별할 것 없는 반응이었지만, 이 3주간의 무빙이란 시간이 그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기에 그러한 반응이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산과 들로 나가 많은 것들을 경험한 다는 것이 좋았다. 산야초효소를 담그기 위해 갔던, 몰래 매실서리를 했던, 그 산의 길목. 물놀이에 다슬기 잡고, 족대로 민물고기를 잡았던 냇가, 야영했던 월악펜션에 안동과 영월, 단양장 등등 쉽게 접하고 있으면서도 마냥 쉽게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사물놀이 연습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던 마지막 주까지. 모두 다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참으로 행복한 3주였다. 이 아이들과 함께였기에 더욱 더 소중한 시간이었겠지. 두 번 다시 찾아 올 수 없는 시간이란 것을 잘 알기에 더욱 더 소중한 추억이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먹고 사는 교사라는 입장에서 정말정말 행복했다.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또 다시 그런 시간들을 살아 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다만 아쉬울 뿐이다.

두 번 다시 오지 못한 이야기여서 가슴 시린 추억
 파도의 물결이 시원했던 부서지는 모래 한 없이 아름다웠던
 오늘도 난 그곳을 그리네 아로 새겨진 문양을 가슴에 그리며
 아직도 그곳을

즐거웠던 안동 모꼬지





애들이 잘가~



19박 20일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부모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19박 20일동안 힘든 내색 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쌤들, 정말 감사합니다.



19박 20일동안 밝은 미소로 함께 해준
방가반가반, 정말 고마워!



함께 했던 밝고 아름다웠던 그 19박 20일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뜨거웠던 2015년 6월,
19박 20일의 이야기도
이젠 안녕 -